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마 13:47)

다사다란했던 한달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의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 대만에서도 한국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겸손과 인내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물을 치라

대만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2급 상태로 각종 활동에 큰 지장 없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었던 경험이 있기에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했던 2년간 대만의 국내는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작은 섬을 주목하시고 150년이 넘도록 부흥하지 못한 대만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심을 목도하며 이곳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 그물의 비유(마 13:47-50)가 크게 와 닿았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이곳에서 고깃배와 그물은 매우 친숙합니다. 교회가 한 곳도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약한 곳들을 다니며 곳곳에 그물을 치고 그물에 들어온 사람을 목양하는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문서 사역 역시 그물을 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대만에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역은 개척이 아닌 협력선교로 현재 네 교회(베이따, 산싱, 주베이, 흥산교회)를 매월 1회씩 방문하여 설교와 심방 및 목회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선교사역이지만 이런 사역이 대만교회에 매우 필요적절하다는 것을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확인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역을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으나 지금까지 이뤄진 일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파트너십 선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북부) 선교 150주년

대만 선교는 크게 북부와 남부 선교로 나뉘는데 남부가 조금 빨라 1865년 영국의 맥스웰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되었고 북부는 1872년 맥케이 선교사의 사역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선교사 모두 장로회 소속으로 대만 장로회는 올해 북부 선교 150주년을 맞이하여 맥케이 선교사가 북부 단수이 해안에 도착(3/7일)한 것을 기념하여 3월6일 주일에 연합 예배 및 축하행사를 타이베이 화평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베이따 장로교회 대부분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대만선교



의 과거와 현재와 관한 공연을 관람하며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역시 이런 대형 집회는 처음이어서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집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대만 선교를 시작하고 현재 가장 많은 교인이 속한 교회가 장로회인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복지나 인권운동에 치중하고 정치성향이 강하게 되면서 선교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협력하는 베이따 장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향하여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맥케이 선교사는 대만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주일 행사에 차이 총통이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고, 주요 도시의 시장, 부시장들이 축하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장로회의 정치적 영향력 탓도 있겠지만 한 선교사의 헌신이 이처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회가 다시금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데에 미력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150주년 기념식 차이 총통 축하



베이따 장로교회 교우들(1층앞좌석)

심방의 중요성

협력 교회와 사역 방향을 의논하면서 저희는 심방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너무 적다면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지인 목회자를 뒤에서 도와 평소에 심방하기 어려운 교우들을 함께 심방하기로 하고 산싱(三星)교회와 주베이(竹北) 교회, 홍산(橫山) 교회 세 곳을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3/11-13일에 산싱교회에 갈 때에 한 형제님을 대동하여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 형제는 다름아닌 문서 사역을 돕는 왕선생으로 저희가 어떻게 선교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여서 함께 갔습니다. 2박 3일을 함께 하면서 책에서만 접했던 선교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다 더 가깝게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며 무척 흥분하였습니다. 실제로 왕선생은 이번 심방에 함께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매번 울먹이며 기도를 하였고 본인과 심방을 받는 자 모두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타이알 원주민 부락 심방

산싱교회 목사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왕형제 4명의 심방 대원이 산길을 달려 원주민 부락에 도착하여 교우(이완 자매)의 집을 심방하였습니다. 이완 자매는 교우 중 가장 신앙이 좋은 자매인데 교회가 멀고 일이 많아서 주일에 오지 못할 때가 많다고 했는데 목사가 직접 토요일에 산골집에까지 올라가 심방하고 기도해줄 때 특별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민박집을 운영하는 이완자매(원주민)와

없었을 것입니다. 자매를 통해 그 마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두 집을 소개받아 그 집을 방문하여 약간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첫째 집은 80대 노모와 장애를 가진 딸이 사는 집인데 마침 아들 가족이 함께 있어서 덕분에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은 대개 낙천적이고 단순하고 화통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삶은 고단함과 수많은 역경으로 가득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는 이들을 볼 때 많은 것을 갖고도 염려하며 웃음을 잃어버린 도시인들과 대조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유머 덕분에 우리는 함께 웃으면서 다음 달에 또 오겠다고 하였더니 다음엔 자기들이 고기를 준비할 테니 우리더러 한국 김치를 준비해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다음달 산상 집회가 성사되었습니다!



두번째 집 역시 노모가 장애인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십이 넘은 아들은 경찰로 은퇴한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다리를 못 쓰게 되어 아무데도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문화에다 주류사회에서 차별 받는 집단이기에 희망이 없어 술에 빠져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상 교회 목사는 이런 이들을 위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절대로 술은 마시면 안된다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기도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번에 꼭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희의 방문을 기다리며 그 기간동안 소망 가운데 지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주민 부락 심방

주베이 교회(愛家福音堂) 심방

주베이 교회는 서부해안 마을에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주말이면 놀러온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평소에는 어민과 농민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시골입니다. 대만은 벼농사도 북부는 2모작, 남부는 3모작을 할 정도로 1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되게 일하고 시간이 나면 놀러 가거나 온천에 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한두 달에 한번 교회에 오거나 다른 종교와 병행하여 믿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자매는 절에서 싸운 음식을 교회에 가져오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지난 달에 심방할 때는 모두 거절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집을 심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배후 남자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왔던 땡 자매가 이번엔 우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 누추하다면서 우리를 환대하며 차와 손수 만든 떡까지 대접하는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

사하고 기뻐했지요. 동역자인 마 전도사님도 그를 알게 된지 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느리지만 점점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노종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또다른 집에 가보니 아흔이 되어가는 할머니가 어릴 때 교회에 다녔으나 지금은 집에 우상 단지를 놓고 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노인은 자신이 손수 만든 수많은 효소와 장아찌를 저희더러 다 가져가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방안 가득 쌓여있는 항아리를 다 차에 싣고 함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또 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일예배를 나오지 못한 한 교우의 집을 월요일에 심방하여 잡초를 뽑는 일을 도와 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주신 장아찌를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며 즐겁게 심방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에 예수그리스도가 심겨지기를 그래서 더 자주 주일 예배에 참석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잡초를 뽑으며 마음의 잡초도.. 2년만에 심방에 응한 땡 자매(좌측2번째)

독거노인 심방

기도제목

1. 150여년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4% 복음화에 머물고 있고 세례교인이라 해도 민간 신앙과 혼합한 다신교적 색채가 강한 척박한 대만교회가 마지막 때에 중화권 선교의 보루로 거듭나게 하소서.
2. 협력사역: 4곳의 협력교회(베이따장로, 산싱, 주베이, 흥산)가 든든히 서 가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소서.
3. 문서사역: 교정작업이 이달 안에 완성되고 비전을 함께 하는 출판사를 연결해 주소서.
4. 4/18-19에 주베이, 흥산 교회 목회자들과 타이알족 기독교 공동체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참석자들이 연합하고 비전을 품는 시간되게 하소서.

2022.3.24. 대만선교사 황창연 오순영 올림